

거리서 만나는 '광주 청년 열전'

광주시, 넷째 토요일 문화전당 일대서 '청년의 거리 축제' 금남로 상인 노하우 전수·창업 브랜드 소개·버스킹 공연

아시아문화전당과 분수대 일대의 5·18 민주광장이 '청년의 거리'로 탈바꿈한다. 이달 23일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 토요일(오후 2시~밤 10시)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만의' 거리 축제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청년의 건강한 상상력을 지역의 혁신 역량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생산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만남의 장소로 청년의 거리를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의 거리는 거리(하드웨어)부터 만드는 기존 조성사업에서 탈피,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모아가면서 만남과 교류의 장소성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청년과의 데이트, 우리들의 업(up/業) 데이트'라는 슬로건으로 ▲업데이트 거리(청년 브랜드 쇼·전시) ▲꿈의 거리(창업 컨설팅) ▲커뮤니티 거리(교류) ▲체험의 거리(창업 체험) 등 5개 구간으로 나뉜다.

2016년 세계청년축제가 열리는 7월을 제외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 운영되며, 매월 청년의 일과 직업으로 연결

되는 산업을 주제로 정해 4월 청년의 멋(패션·뷰티 산업), 5월 청년의 혼(광주정신과 청년), 6월 청년의 끼(미디어 산업), 8월 청년의 감(여행·관광 산업), 9월 청년의 삶(라이프스타일 산업), 10월 청년의 모든 것(종합)으로 진행된다.

업데이트 거리는 청년들이 생산하고 있는 기발한 상품을 보여주는 쇼와 전시로 채워지며, 4월에는 그랜드마더(선병숙), 어라운드(설민선), 몬스터 리퍼블릭(김경태), 한옥신사(조준근) 등 20개 팀의 고유한 브랜드가 소개된다.

또, 전국 의류학과 대학생 연합체 '오피'의 패션쇼를 통해 각지에서 모인 50팀의 예비 디자이너들이 옛 도청 건물을 배경으로 '청년의 빛, 광주의 빛'이라는 주제를 의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꿈의 거리는 아이템 개발과 특허, 투자 등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형 멘토링을 진행한다. 출향 인사를 중심으로 창업자 및 기업체 임직원을 멘토로 초청해 지역청년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체험의 거리는 투자 스피치, 모의 투자,



모의 세일즈 등 다양한 일과 직업, 직무 및 창업의 세계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움직이는 포토존, 모델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시민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주변 금남로 상가와 연계한 모의 세일즈 '대신 팔아드려요'를 통해 기존 상인들의 노하우에 청년의 감각을 더해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협력의 모델을 만든다는 포부다.

커뮤니티 거리는 고민과 불안, 경쟁에 지친 청년들이 모여서 위로하고 다독이는 편안한 쉼터의 공동체 장소로 꾸며지고,

청년들의 장사 도전기

공부를 못해도, 성공하는 가게를 열 수 있고, 망 주변이 없어도, 능력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일시 4월 23(일) 오후 2시 - 오후 6시
장소 금남로 1가 1차 목포다
대상 2016년 4월 23(일) 오후 2시 - 오후 6시
문의 010-5899-5179, 이영, 안영, 성별 발송

행사 내용
현장에서 안내해드리던 할인대우-오시면 현금 3만원쯤 드릴거예요! 그 현금으로 금남로 지하상가에 있는 물건을 산 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동안 되팔아서 가장 큰 이익을 남기신 분께 1만원 50만원쯤 드립내드려요! "어때요? 자산있어요?"

- 청년의 거리 -

광주 버스킹 행사와 연계한 광주 출신 뮤지션 장재인씨의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자치행정국장장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 같은 청년들을 찾아내는 것이 청년의 거리의 1차 목표다"며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이 광주의 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과 행사내용은 청년의거리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youthstreet), 블로그(blog.naver.com/gjyouthpolitics)를 참조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광주역서 만나는 시·서·화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와 국립나주병원(병원장 윤보현)은 최근 광주 남광주역에서 '정선건강 시·서·화 전시회 개막식'을 갖고, 국립나주병원과 광주시 5개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나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함께 준비한 50여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도시철도공사 제공>

'광주 웹콘텐츠페스티벌' SNS 도우미 모집



광주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 추진 위원회(위원장 김택환)는

"오는 27일까지 웹콘텐츠 페스티벌의 성공적 운영과 홍보 업무 등을 보조해 줄 '도우미' 5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식 도우미' 명칭은 '센시(SENSEE)'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와 Sense(감각), 사람을 뜻하는 ee에서 모티브를 따 'SNS(웹콘텐츠 연계를 감각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포터즈는 ▲웹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시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능통한 시민 ▲홍보 및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면, 전공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팀별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민들은 우대한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오는 5월 1일부터 행사가 진행되는 6월 26일까지 총 8

주 동안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비롯해 페스티벌 홍보콘텐츠 제작, 페스티벌 기간 운영 및 진행 보조 등 다양한 현장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뛰어난 성과를 보인 서포터즈는 심사를 통해 광주시장(1명)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2명) 등을 받게 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서는 페스티벌 홈페이지(http://www.wccf.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이메일(webcof2016@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062-601-4861.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6월 23~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 유럽 53개국 참여하는 ASEM 문화장관회의와 연계해 열린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내달까지

저상버스 166대 전수 점검

광주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운전원 교육과 교통약자 편의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운전원 대상 교육은 경사판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조작방법과 교통약자 승·하차시 응대 요령 등 실습 교육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저상버스는 경사판(슬라이딩 랙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돼 있어 운전원들이 편의시설 조작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교통약자 승·하차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교통약자 시설 점검은 광주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현대자동차부와 공동으로 대정운수 등 10개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전체 166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이용하는 경사판(슬라이딩 랙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 모터 작동상태, 휠러 부식정도,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장치, 하차벨 점검과 실내 환기 탈취제 살포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 중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수리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버스회사가 5월 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구 교통문화연수원, 친절한 운수종사자 양성 힘 모으기로

광주교통문화연수원(원장 정영식)과 대구교통문화연수원(원장 김대현)이 최근 대구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 상호간 이해증진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사고 예방, 친절한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달빛교통문화동맹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양 지역 교통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정보를 상호 공유 활성화 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발굴 추진키로 했다.

또 교통안전도시 도약 및 친절한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상호방문 및 정보교류 ▲대구 광주 화물운수종사자 타지역 교육비 면제 ▲문화

관광교류 활성화 ▲임직원 합동워크숍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영식 원장은 "광주·대구 달빛동맹에 따른 협력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운수종사자 상호간 이해증진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감독과 함께하는 '5·18 영화 토크'

광주드라마센터(센터장 강용주)는 23일부터 총 3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치유 시네마 토크'를 개최한다. '치유 시네마 토크'는 5·18관련 영화를 관람한 후 참석한 시민들이 영화감독·제작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23일에는 '아픔이 계속된다'를 주제로 영화 '26년'의 조근현 감독과 조진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이 ▲30일에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주제로 '박하사탕'의 이창동 감독과 김태중 5·18기록관 연구실장이 ▲5월7일에는 '내일도 데

릴러 외주실 거죠'를 주제로 '화려한 휴가'의 유인택 제작자와 정교필 문화기획자가 '치유 시네마 토크'를 이어가며, 사회는 오동진 영화평론가가 맡는다. 강용주 광주드라마센터장은 "치유 시네마 토크를 통해 광주 시민들의 5·18에 대한 세대 간 공감대를 높이고 치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유 시네마 토크'는 광주드라마센터와 5·18기념재단이 공동 주관하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문의는 광주드라마센터(062-601-1974).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모델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평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리모델링 공사비 4억 별도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여수, 대지매매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평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무인텔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평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11억 2500만원 낙찰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오천경매

- ▶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실분!
- ▶ 특수 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 ▶ 교육비 1,200만원
-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